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TURKEY



최근에 큰 지진으로 고통받는 터키땅은 초대교회의 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끝없는 복음의 열정이 부어진 땅이자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던 곳이 바로 이 곳 터키였습니다. 로마시대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일어난 계시록 7대교회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미전도종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국가입니다. 본래 1900년까지도 인구의 22%나 차지하던 기독교 인구는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0.21%까지 떨어졌고, 현재 기독교 인구는 총 17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복음주의권의 개신교인들은 현재 4,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터키인에게 이슬람은 그들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국의 산업이 급속히 현대화된 데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종교심과 너무 융합되어, 터키 국민이면 당연히 무슬림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기독교인들은 함께 예배할 자유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고, 최근에는 정부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숫자가 많지 않은 터키의 교회는 지도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으며, 터키 기독교인들은 주요 언론매체를 담대하게 이용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로 피난 온 많은 시리아,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진과 홍수, 심각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안등으로 인해 터키 국민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출처: Operation World, 오픈도어, 순교자의소리)



수도: 앙카라
인구: 약 8,504만 명
주요종족: 터키족, 쿠르드족, 아랍인
주요언어: 터키어
주요종교: 이슬람 96.6%, 기독교, 유대교
미전도종족(UPG) 숫자: 45



터키를 위한 기도

1. 터키정부가 터키 교회의 헌법상의 자유를 인정하게 하셔서 무슬림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2. 최근의 지진들로 피해를 입은 터키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도움과 복음의 위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소서.
3. 터키의 믿음의 차세대 리더자들을 세워 주셔서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터키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
4. 터키 안에 사는 아랍과 페르시아 난민들 가운데 복음이 흥왕하여 그들이 터키 국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나누게 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SYRIA



2011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시리아 사람들의 삶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75만에서 100만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탈출했고, 40만여명이 사망했으며, 400만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기에 많은 무슬림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시리아 교회는 전쟁을 겪은 시리아 국민에게 희망의 샘이자 평화의 원천이 되어왔고, 시리아 국민들이 그러한 교회를 찾아 오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헤어나오고자, 삶의 의미와 진리를 구하고자, 그리고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받아주었던 국가들이 그들을 다시 시리아로 보내면서 많은 시리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신자들은 기독교인이 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지역 교회를 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을 희망하며 저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집단은 기독교인들을 시리아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기를 쓰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교회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인 핍박 사례가 흔하지 않으나 기독교를 향한 일반적 적대감은 팽배합니다. 한때 시리아는 중동 국가 대부분에 비해 종교적 관용을 후하게 베푸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제는 시리아 기독교인은 중동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시련에 직면해 일자리나 사회적 지위나 가족 관계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않으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극단주의자들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는 엄청난 숫자의 유랑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겪은 큰 지진으로 인하여 시리아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은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출처: Operation World, 오픈도어, 순교자의소리)



수도:다마스쿠스
인구:약1,826만명
주요종족:아랍인 90%, 기타 9.7%
주요언어:아랍어
주요종교:이슬람80%(수니), 기타이슬람 16%, 기독교 3.1%
미전도종족(UPG) 숫자: 19



시리아를 위한 기도

1. 시리아 정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래 지속된 내전이 종결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2. 시리아내의 신도와 교회를 축복하소서. 특히 교회 리더들과 새신자들을 핍박에서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3. 그리스도인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4. 시리아에 있는 베두인, 집시, 쿠르드, 드루즈 족과 같은 미전도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SOMALIA

소말리아는 일명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반도 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Somaliland)와 푼틀란드(Puntland)라는 두 개의 반(半) 자치 지역을 포함해 나라 전체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는 '전쟁 문화'가 있습니다. 소말리아인들은 싸우는 것을 거절하면 이를 일종의 나약함으로 여깁니다. 또한 소말리아인들 가운데에는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코란을 읽을 수가 없지만 소말리아인이라면 당연히 무슬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소말리아 국민은 국가의 종교뿐 아니라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말리아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으며 기독교인이 되거나 전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에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삽니다. 소말리아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샤바브는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을 찾아다니며,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즉시 죽입니다. 기독교인은 투옥되기보다 가족에게 살해당할 가능성이 더 큼니다. 몇 년에 걸친 가뭄과 내전으로, 오늘날에는 국내보다 국외에 사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소말리아인들은 어디든지 자국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소말리아이며 그곳은 소말리아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곳이든, 소말리아 국민이 모여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관계없이 모질게 박해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국민이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SNS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들은 소말리아 국민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의 기독교인 숫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동포들에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Operation World,오프도어,순교자의소리)



수도:모가디슈

인구:약1,640만명

주요종족:디르족, 다루족, 하위예족, 이스자아크족

주요언어:소말리아어, 아랍어

주요종교:이슬람99.7%

미전도종족(UPG) 숫자: 20



소말리아를 위한 기도

1. 소말리아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정치적 안정을 허락하소서. 계속되는 알샤바브의 내전 음모와 협박을 멈춰주소서.
2. 소말리아 국민들 정서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극단적 이슬람화가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기존의 신자들이 억압과 핍박을 견뎌낼 힘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사랑을 부어주소서
4. 계속되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게 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KAZAKHSTAN

'정착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남한의 26배나 되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문화와 종교, 예술, 상품이 교류되던 실크로드의 요충지였고 지금도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130여 개의 민족들이 함께 터를 두고 있는 땅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무려 2세기 동안이나 러시아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습니다. 해서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도 러시아와 계속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수많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 부는 주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혼란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난 2022년에 대대적인 데모를 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에서 온 군사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당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이곳에서는 이슬람이 활기치고 있으며, 타종교들은 국가가 엄격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작인의 대부분은 민족적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고 있으며 샤머니즘 사상이 혼합된 민속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정부와 이웃들로부터 기독교인것이 밝혀지면 여러 방면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특히 뇌물이나 해고와 같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교회들을 습격해서 신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무슬림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문을 하나씩 열어 열고 계십니다. 카자흐스탄의 무슬림 청년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교회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마단 기간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카자흐스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출처:Operation World,오프도어,순교자의소리)



수도:아스타나
인구:약1,920만명
주요종족:카즈흐인, 러시아인
주요언어:카자흐어, 러시아어
주요종교:이슬람53.7%,러시아정교23%,개신교2%
미전도종족(UPG) 숫자: 36



카자흐스탄을 위한 기도

1. 카자흐스탄의 타락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권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와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2. 카자흐스탄 크리스찬들이 많은 억압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게 하시고, 성령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소서. 특별히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그러하게 하소서.
4.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기술과 지혜를 교회들에게 허락하셔서 전도사역에 족함이 없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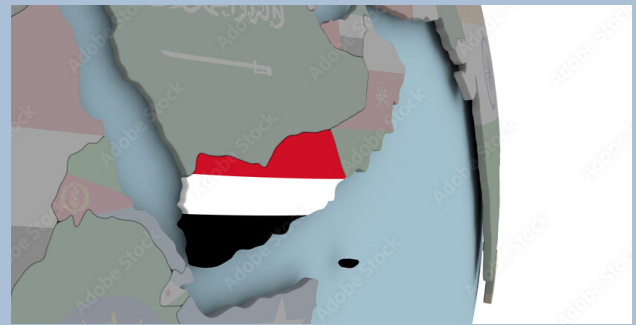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YEMEN

행복한 아라비아'로 불렸던 예멘은 오랜 문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멘은 우리와 같이 20세기에 남예멘의 사회주의와 북예멘의 자유민주주의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통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자스민 혁명은 예멘을 휩쓸었고 33년의 살레 대통령의 독재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남북간의 내전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부족 간의 세력다툼, 수니파-시아파의 갈등과 최근 IS를 비롯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까지 더해져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민 평균 연령이 19.5세이고, 25세 이하 인구가 전 국민의 61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내전으로 인해 작년 경제성장이 0.08%에 멈추어 아랍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데다가 설사 교육을 받는다 해도 좋은 직장은 구하기도 힘들고 허드렛일이나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목돈을 받고 딸을 일찍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핍박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예멘이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멘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그들이 직접 거리로 나아가 이슬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는 자들의 수는 작으나 그들만의 방법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현재 대부분의 예멘지역에는 적어도 한명의 크리스찬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돕기위해 여러 선교단체가 세운 예멘 네트워크를 통해 저들에게 성경을 비밀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예멘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출처:Operation World,오프도어,순교자의소리)



수도:사나

인구:약3,370만명

주요종족:아랍인

주요언어:아랍어

주요종교:이슬람99% (시아,수니),기독교0.01%

미전도종족(UPG) 숫자: 21



예멘을 위한 기도

1. 오래 이어진 내전과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켜주소서.
2. 종교자유를 문을 열어주소서. 예멘이 그리스도를 만나 주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사는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3. 지교회에서 수많은 협박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는자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4.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 복음이 예멘의 국민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ERITREA

'은자의 왕국(hermit kingdom)' 북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2002년 이슬람, 정교회, 가톨릭, 루터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금지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단체는 불법이며 정부는 허가된 교회에 대해서도 강단의 메시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년 간의 공산주의와 의무적인 군복무와 경제불황으로 복음주의 신자들을 포함한 많은 에리트레아 국민이 국외로 떠나야 했습니다. 2018년 에티오피아와 평화 협정을 맺어 20년간 지속된 전쟁 상태를 종식시켰지만 이 평화 협정 이후에도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석방된 기독교인 수감자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며 비밀리에 모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 지하교회에 침투하여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6년 간, 영향력 있는 에리트레아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기독교인 600명가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받거나 가족을 면회할 권리가 없고, 주변의 친지들은 이들이 투옥된 장소도 모르고 심지어 생사도 모릅니다. 독실한 죄수들은 가장 엄격하고 먼 교도소로 보내지는데, 빈약한 배급량에, 때로는 사막에 놓인 선박용 컨테이너에 갇혀 극한 환경에서 몇 년을 지내기도 합니다. 성경도 정부가 판매된 성경을 추적하므로 구입할 시 밀반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성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에서 신앙을 갖게 되면 목숨과 맞바꾸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국내외 교회 지도자들이 신실하게 일하면서 에리트레아 지하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숨은 종들을 통해 에리트레아의 남은 무슬림들이 주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출처:오프도어,순교자의소리)



수도:아스마라
인구:약362만명
주요종족:티그리냐족, 티그레족, 사호족 외
주요언어:티그리냐어, 영어, 아랍어
주요종교:기독교47%,이슬람47%,기타 3%
미전도종족(UPG) 숫자: 21



에리트리아를 위한 기도

1. 거짓에 속아 굳게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이 속히 열리게 하소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소서.
2. 에리트레아 교회 리더들과 정부와의 호전관계를 허락 하소서. 그래서 정부의 교회 억압정책이 사라지게 하셔서 무슬림 이웃들에게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3. 감옥에서 투옥 중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육을 보호하소서. 저들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수감자들이 주를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NIGERIA

최근 20년간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나이지리아는 종교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나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무슬림들은 주로 북쪽에, 기독교인들은 주로 남쪽에 거주하고 있고, 각각 나라 인구의 절반씩 차지합니다. 이 나라의 개신교 인구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으나 무슬림 신도들의 숫자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1833년 영국의 노예제도 철폐 이후로 꾸준히 활동했던 기독교인들의 열매로 최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이 2008년도에 동북부를 중심으로 설립되면서 나라 곳곳에서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국가 북쪽에는 농부들이 쫓겨나면서 땅이 황폐해지고 있고, 극심한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쪽에서는 납치와 성폭행, 그리고 살해등으로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몰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독교인들의 핍박지수 또한 세계 5-6위안에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종교적 박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을 공격하고픈 유혹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더불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갑작스러운 부흥과 성장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제자도를 배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이단 종교단체들이나 변영주의신학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아프리카 토속 종교들과 혼합되어서 변질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삶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Operation World,오프도어,순교자의소리)



수도:아부자

인구:약2185만명

주요종족:하우사족, 요루바족, 이그보족 외

주요언어:영어, 하우사, 이그보, 요루바

주요종교:기독교51%,이슬람47%,기타 3%

미전도종족(UPG) 숫자: 90



나이지리아를 위한 기도

1. 보코 하람과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이 무너트려서 저 땅 가운데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2.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아파하고,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고, 주의 인내 또한 더하소서.
3. 성장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신자들이 성경과 성령님을 자신들의 삶에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영향력을 나라 가운데서 행사하게 하소서.